

불교산업 점검 2 - 불교계 생활협동조합

불교계 생협 아직도 '걸음마'

천주교, 불교계 전체 매출액의 30배... 생명·평화 가치 지키며 활성화 모색 시급

2003년 창립한 인드라마생협은 불교계 생협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창립 초기 4억원이었던 인드라마생협의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현재 7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 다른 생협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2009년 11월 창립한 대불정 '연꽃생활협동조합'의 연평균 매출액은 1억원이며 조합원수는 340명 정도다. 2007년 7월 창립한 대전불교생협은 5000만원 정도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520명의 조합원이 참여 중이다.



인드라마생협 신정동 매장. 불교계 생협들은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이 목말라 있다.

그러나 불교보다 앞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한 천주교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생협매장 '하늘 땅 물 빛'의 지난 해 전국 총 매출액은 300억여 원에 달한다. 이는 인드라마생협과 비교해도 30배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맹주형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교육기획실장은 "천주교는 교계 내에 생협할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다. 전통이 오래된 가톨릭 농민회와 가톨릭의 통일된 구조와 절차가 힘이 된다"라고 밝혔다.

가톨릭 농민회는 1966년 창립된 농민운동 단체다. 이들은 종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농법, 자연농법 등 생명농업을 개발하고 실천해 왔다. 또한 1994년 출범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와 함께 생명운동의

관점에서 생협을 발전시키고 있다.

가톨릭 생협은 무조건 낮은 단가를 고수하지 않는다. 지난 해 배추값이 폭등할 때도 가격을 무조건 올리지 않고 합리적 가격을 유지했고, 반대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도 농민 보호를 위한 가격 정책을 시행했다.

가톨릭 신부들은 도시와 농촌 교구가 결연을 맺고 신부와 신도들이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한다. 농

부들은 함께 밭갈리는 신부를 보며 신앙적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한다.

생협 관계자들은 생협 발전의 3대 요소로 △종교 생협의 가치를 이해하는 생산자(농민) 조직 △생협의 정신으로 생산된 농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조직 △물류와 유통의 전문성 등을 꼽는다.

그러나 불교 생협은 모든 조건이 아직 미흡하다. 불교 역시 생협 활동의 교리적 근거가 충분하지만 미약한 조직력과 무관심 속에 10년째 답보 상태다.

인드라마생협은 현재 100여 산지에서 물품을 납품받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지금도 인드라마의 가치를 이해하는 농민들의 생산물은 7-8곳의 생산지에 불과하다. 대불정 연꽃생협은 농사를 짓는 회원 등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대전불교생협은 인드라마생협과 기타 생산처에서 조달하고 있다.

소비를 담당할 도시 불자들의 생협에 대한 낮은 이해도 불교 생협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불교와 생협의 가치를 이해해도 시

중보다 다소 높은 가격 앞에서 망설이는 것이 스님과 불자들의 현실이다.

인드라마생협은 최근 '인드라마 제철 꾸러미'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인드라마 귀농학교 이수자들이 황성에서 여성 및 고령의 농민들과 함께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다. '인드라마 제철 꾸러미'에는 유정란, 순두부, 제철 채소 및 곡류, 밀 반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량 다 품종 농사를 짓는 소농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땅과 농업을 지킬 수 있다.

대불정 연꽃생협도 생협 활동의 토대가 되는 생산자망 구축을 위해 전국 회원 중 농민들을 파악하고, 이달 안에 생산자 모임 결성을 추진 중이다.

이정호 인드라마생협 상무이사는 "생협이 단순히 건강한 먹을거리 운동이 아닌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사찰과 농촌이 생협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해 생태생명 시대에 불교가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이주의날씨 5월 첫째 주(4월 27일~5월 2일)



지역	28일(금요일)	29일(토요일)	30일(일요일)	1일(월요일)	2일(화요일)
서울	구름조금 7/17	구름맑음 6/18	구름맑음 7/19	구름맑음 10/20	흐리고비 10/20
부산	구름조금 10/17	구름맑음 11/19	구름맑음 11/19	구름맑음 12/22	흐리고비 13/19
대구	구름조금 8/19	구름맑음 10/20	구름맑음 10/21	구름맑음 12/22	흐리고비 12/19
대전	구름조금 3/19	구름맑음 3/18	구름맑음 4/19	구름맑음 10/20	흐리고비 10/17
광주	구름조금 7/17	구름맑음 8/19	구름맑음 8/19	구름맑음 11/21	흐리고비 12/18
강릉	구름조금 8/17	구름맑음 9/19	구름맑음 10/20	구름맑음 9/20	흐리고비 10/17
제주	구름맑음 10/18	구름맑음 10/18	구름맑음 11/19	구름맑음 11/20	흐리고비 11/18

특별기고 / 이정호 인드라마생협 상무이사

인드라마생협과 귀농자의 농촌마을 정착하기

인드라마생협공동체는 불교사상에 입각해 생명평화운동을 진행한다. '연기법'에 입각해 사회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불교사회단체인 것이다. 인드라마생협공동체는 '귀농학교', '대안학교',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주로 불교계에서 농업농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통해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이 '불교귀농학교'와 '실상사귀농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드라마생협공동체를 통해 귀농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1500여 명을 넘는다. 이 중 약 30%인 약 450명의 사람들이 귀농을 시도해 도시인

에서 '농부'가 됐다. 귀농학교를 찾으시는 분들은 보통 2-3년의 준비기간을 염두에 둔다. 여기에 귀농 후 '초보농사꾼'으로 살면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먹는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2-3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자신이 정착한 지역에서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의 구성원이 되어 어엿한 '생산자'인 농부가 되려면 또 다시 2-3년의 시간이 걸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 명의 도시인이 '귀농'에 뜻을 내고, 농부가 되어 지속가능한 생산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6년, 길면 9년의 세월이 걸린다.

인드라마생협공동체가 창립해 10여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그래서 이제 귀농자들이 몇 개의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적게나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 불교계의 사회단체가 '친환경농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 분들이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을 중심으로 농촌마을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협동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다.

지금부터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귀농자들이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

인드라마생협공동체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인드라마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농업을 천시하고, 농부를 폄하해 왔다. 그리고 도시를 살피워왔다. 그것이 사회가 '성장'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각종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먹을거리가 위태로워지고, 지역공동체가 파괴됐다.

이제 생명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천천히 이런 삶의 방법론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우리 불자들에게 익숙한 '생명살림의 사회'를 향해 갈 수 밖에 없다. 인류가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 '생명'과 '자연'과 '생태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명을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농부를 만드는 일은 이러한 긴 걸음의 첫 번째 걸음이다. 이제 아직은 외로운 이 초보농사꾼들에게는 도시의 친구들이 필요하다. 우리 불자들이 이 분들의 손을 맨 처음 잡아주는 친구가 돼 주었으면 한다.

인드라마생협(www.indramang.coop.or.kr)과 불교계 생협 활동을 통해 잃어버린 '오래된 미래'인 마을 공동체를 살려주는 일에 함께 했으면 한다.



자료제공=케이웨더 www.kweather.co.kr (02)360-2200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한글·한문)
 해조역 | 사륙배판 | 전7권 | 전체 1,760쪽 | 65,000원

우리말 법화경 사경
 해조역 | 사륙배판 | 전5권 | 전체 940쪽 | 40,000원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해조역 | 국판양장 | 630쪽 | 18,000원

INDIA

한권으로 만나는 인도

불교가 탄생한 나라, 한권으로 정리된 인도 이해의 길잡이!
 인류 정신문명의 요람, 종교와 신화의 보물창고, 방대하고 복잡한 역사를 가진 인도 사회에 대한 간결하고 핵심적인 안내서!

이병욱 지음 | 신국판 | 310쪽 | 값 13,000원

지관좌선법을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힌 모든 수행자들의 교과서!

천태대사의 『수습지관좌선법』을 알기 쉬운 현대어로 번역하고, 상세한 주를 덧붙여 원문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천태 지자대사 지 | 윤현로 역주 | 국판양장 | 276쪽 | 값 1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